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총으로 덧씌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소화할 능력, 이해할 능력과 붙잡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힘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벼운 마음으로, 흥분분하게 한 해를 시작하자. 모든 문제는 끝났으니까. 새해 첫 주일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못 하는 것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영원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되신 사실은 다 이루신 완전한 사건이다. 주님이 요19:30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복음은 충분하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것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아침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 돈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주어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이 주어를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약한가? 하나님이 모자란가?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도 내 것이다. 이 세상을 내가 지었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변명을 하면 안 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구름 날개로,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며, 얼마든지 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육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물이 합쳐져서 적들은 그 속에서 다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자라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전도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1.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1)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다. ‘큰 용사여’ 하고 불렀지 않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본문인데,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모았다. 사실 전쟁의 기본은, 그 당시만 해도, 숫자로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같으면 누가 핵을 가지고 있고 누가 좋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때는 숫자가 전부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나폴레옹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잘 싸운 이유가, 전

체 병력이 적군보다 적을 때에도, 지형이나 이동 속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적보다 많은 숫자가 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일을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미디안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을 모아 봤더니 고작 3만 2천 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많으니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겁이 나고, 최근에 장기간 사람,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실 사람, 밭 갈고 씨 뿌려야 할 사람, 그런 여러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겨우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명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목이 마른 이 병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물을 먹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움켜져 훑아먹으며 사방을 살피는 사람과, 엎드려서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을 나누게 하셨는데, 9700명은 후자였고, 300명이 전자였다. 하나님은 이 9700명을 보내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사람이 300명이다. 이 병력을 데리고 싸우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300명이 최고의 용사였다고 주장한다. 물을 마실 때에도 사방을 주시하며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 하나를 마실 때에도 겁이 나서 사방을 살폈으니 오히려 겁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보시지 않았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300명이면 족하다. 300명을 가지고 싸워라.” 지금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을 가지고 싸워야 하니, 50대 1에 가깝지 않나. 지도자는 또 누구인가? 기드온은 농부였다. 농사를 지으면서 용감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적들이 빼앗아갈까봐 조금씩,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다.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연약한 지휘관과, 지극히 적은 군대로, 저 강하고 숫자 많은 미디안 군대를 격파시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따르기 힘든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2) 왜 굳이 그렇게 하셨겠는가? 사람의 힘과 지혜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민족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신약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이다. 승리를 두고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 사람의 힘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인이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2016년에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고, 우리 사업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업이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80살이 된 도망자 모세를 세웠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소년 목동 다윗을 불렀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마침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출14:14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응답을 2016년에는 참사랑 가족들이 모든 삶의 현장, 신앙생활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어제 전인숙 전도사님의 손자 둘을 맞이해서, 이 이야기를 아이와 엄마에게 해 주었다. “한 번만 보여줘라. 엄마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만 보여줘라. 그러면 이 아이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뿌

리가 내려지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금년에 우리가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부러 3만 2천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을 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장로님들과 이야기했고 1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꼭 70명 안 나와도 되겠다 싶다. 장로님 27명으로 된다. 300명 우리 성도들로 충분하다. 간단하다. 나는 숫자 게임을 하려고 여기에 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그렇다면 기도하면 된다.

2. 그러면 어떻게 싸우게 하셨는가?

(1)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을 때 가장 먼저 성령충만을 받고 시작했다. 사6:34에, “여호와 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같은 말씀이다. 기드온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던 것이다. 참사랑 가족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16년, 낮은 시간을 출발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란다. 사업을 할 때, 직장에 갈 때, 공부할 때,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아라. 가장 먼저 할 것은 성령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 모든 교우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2)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군대가 모였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주셨다.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아서 팀이 구성되었다면, 이 팀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받으라. 사7:7은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했고, 9절에는 ‘이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너에게 넘겨 주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은 가서 이 산지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신다.

(3) 이 말씀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어떻게 했는지 보자. 기드온은 반복해서 이것을 확인했다. 처음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 증거를 주십시오.’ 한 것이다. 몇 번이나 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그 증거를 주시면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양털 한 움큼을 밖에 둘 테니까, 땅은 보송보송하고 털에만 물이 흥건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을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정말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것으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반대로, 땅은 다 젖었는데 털만 뽀송뽀송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웃음) 정말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야 나아가는 것이다. 대단하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지 않나?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가지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고 모자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고 쭈뼛쭈뼛하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오늘 저녁에 적진에 가 보라.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들어보라.” 정말 살금살금 가서 들어보니까, ‘빵 하나가 굴러와서 자기들 진영을 치더라, 우리 진영이 쑥대밭이 되더라,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뜻 아니냐?” 그 꿈 이야기까지 듣고 오니까 확신이 생긴 것이다.

(4) 삼면이 산이고, 아래 평지에 적진이 있는데, 이 산 위에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모였다. 향아리에 담긴 횃불, 칼, 나팔, 세 가지를 가지고 갔다. 기드온이 자기 병사들에게, 향아리를 굴러 깨뜨리고, 서서는 나팔

을 불고 외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놀라서 서로를 찌르고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중지란에 빠졌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도망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쫓아가서 무찌른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전도운동은 여호와와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지역에 비취지게 하는 캠프다.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게 되어서 흑암은 도망가고 예비된 생명은 살아나는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어제 보니까 토요일에도 모임이 있던데, 길거리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 우리 옆의 교회 교인들인 모양이다. 가면서 전부 우리 교회를 힐끔 쳐다본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웃음)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은 삼백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이고 그 거룩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말씀을 마치겠다. 오늘 제목이 300명이다. 용사인지 겁쟁이인지 몰라서 그냥 300명이라고 했다. 딱 우리교회 사이즈다. 우리 사이즈면 지역 살리고 수도권 복음화, 세계복음화, 다 할 수 있다. 생명 건 300명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떠날 기도의 300 용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지역을 살릴 300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300군데 지교회 현장, 말씀운동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300명의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할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오늘 청년 한 명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 “저는 직장 가기 싫었고 3년 쯤 놀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직장에 가게 되어서 견습생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교회에서 처음 봤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다. 그리고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월급을 받으면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께 인사도 안 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일이 우리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다. 좋은 짝을 본 것 같다. 2016년의 좋은 짝을 본 것 같아서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 주었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렘넌트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옵소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2:3에 말씀했다. 우리가 바로 군사다. 부름을 받은 큰 용사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기드온과 같이, 또 300명의 제자와 같이 쓰임받는 한 주간,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300명이면 족하다, 우리 교회면 족하다’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시다. 2016년은 50주년을 기념할,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직장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학업과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